

오렌지카운티 사찰 순례 코스 선보여

한국·대만·티베트 불교사원 참여

1683년 뉴욕 주 최초로 설립된 12개 카운티 중에 하나인 오렌지카운티(orange county NY). 미국 역사·문화의 정수를 그대로 담고 있어 대표적인 관광지이기도 한 이곳에서 한국·대만·티베트 불교계가 '불교 알리기'에 나섰다.

타임즈 헤럴드-레코드(Times Herald-Record · www.recordonline.com)는 "관광객과 오렌지카운티 관광공무원, 지역 언론사 기자들이 세인트앤드류 가에 있는 다르마 쉘(Dharma Seal) 사원을 방문해 불교문화 이해와 불교수행 체험 시간을 가졌다"고 3월 11일 보도했다.

이날 다르마 쉘 주지 신-싱(Xin-Xing, 대만) 스님은 관광객 등에게 "공동체생활을 하면서 나와 다른 사람의 생각·주장을 받아들이는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스님은 "오렌지카운티 관광국의 '불교 사원 순례 프로그램' 첫 손님을 맞이할 수 있어 감회가 남다르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사회에 뿌리 내리고 있는 불교의 참 모습을 선보이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타임즈 헤럴드-레코드는 "이 자리에는 한국의 지광 스님(원각사 주지), 티베트의 켈포 칼상 갈텐(Khenpo Kalsang Gyaltzen) 스님(테체 쿤차브 림 사원 주지), 에니 쿤가 초드론(Ani Kunga Chodron) 스님 등도 함께 했다"고 덧붙였다.

'불교 사원 순례 프로그램'은 수잔 호버메일(Susan Hawvermale) 오렌지카운티 관광국장의 아이디어로 시작됐다.

호버메일 국장은 브리안 메이어(Brian Maher) 웰든 시장이 테체 쿤차브 림 사원 예방시 동행했다. 그곳에서 서양 여성으로서 티베트불교의 계를 받아 출가한 에니 쿤가 초드론(Ani Kunga Chodron) 스님을 만나, 오렌지카운티에서 뿌리 내리고 있는 각각의 불교계와 사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수잔 호버메일 국장은 "초드론 스님의 말을 듣는 순간 관광상품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았다"고 말했다.

호버메일 국장은 "미국인이라면 누구나 인터넷 등 여러 통로를 통해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만, 정작 불교사원을 찾고 그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오렌지카운티 순례 프로그램은 관광공무원의 아이디어로 시작됐다.

사람은 많지 않다"며 "오렌지 카운티의 '불교 사원 순례 프로그램'은 누구에게나 성스러운 공간(사원)에서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렌지카운티 관광국 '불교 순례 프로그램' 협력위원회를 맡고 있는 초드론 스님은 "올여름까지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해 보완한 후,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렌지카운티에 소재 다르마 쉘 사원, 원각사, 테체 쿤차브 림 사원, 블루 클리프 사원(Blue Cliff Monastery) 등과 협력해 매주 첫 번째 주 일요일마다 순례 장소로 적극 개방하는 한편 불교수행을 체험하고 불교문화를 이해하며 불교수행을 맛볼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종욱 편집위원

현대 중국불교연구 불씨 지퍼

세계의 불교학자(11)

라이용하이(賴永海) 중남경대교수



중국 문화대혁명으로 불교학 연구가 단절됐다. 1980년대 개혁개방 정책으로 현대불교학 연구가 재개됐고, 최근에는 민족 정통성 회복과 중화사상의 현대적 부흥을 위해 중국불교 연구가 한창이다.

1980년 중국 불교학자를 꼽으려면 라이용하이(賴永海) 교수(남경대)를 빼놓을 수 없다. 라이 교수는 '중국불성론'의 연구로 주목을 받는 학자이다.

라이용하이 교수는 불교가 성행하는 푸젠성(福建省) 민난에서 출생했다. 지역적 환경 탓에 그는 유년기부터 깊이 불교의 혼란에 몰두 수 있었다. 이런 성장 배경은 그로 하여금 불교학에 관심을 갖게 했고, 1978년 사회과학원에서 임계유(任繼愈) 선생을 지도교수로 불교학을 전공하게 됐다.

라이용하이 교수가 석사과정을 시작한 것은 1965년도로부터 10여 년 동안 진행된 '문화대혁명'이 마무리되고, 이른바 현대화로 급진화하던 시기였다. 석사과정에서 라이 교수는 승조(僧肇)의 <조론(肇論)> 가운데 <부진공론(不真空論)>에 매료돼 점차로 불교에 유가와 도가철학이 범접할 수 없는 깊은 철학적 사유가 존재함을 깨닫게 됐다.

1982년 중국의 대학에서 최초로 박사과정이 개설됐다. 라이 교수는 박사과정에 진학해 본격적으로 불교학을 연구했다. 이때, 라이교수는 본래의 중국철학 연구에 더해 "외래종교로서 불교가 어떻게 중국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는가?", "대승·소승이 동시에 전래됐는데, 유독 대승 불교만이 발전하게 됐는가?", "중국의 전통사상인 유·도 양가의 사상과 불교는 어떻게 서로 융합하는가?" 등의 문제를 설정하고, 그에 대한 접근을 시도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중국불성론'에서 찾을 수 있다고 정리했다.

라이용하이 교수는 이같은 사유와 연구를 모아 박사학위 논문 <중국불성론>을 완성했다.

그 과정에 대해 라이 교수는 "당시 도서관에는 대장경이 오직 한 질만이 있어 대출이 불가능했다. 다른 전적을 역시 충분히 못하여 몇 십 리 되는 거리를 매일 오가면서 16권의 두꺼운 노트와 수 천 장의 카드를 준비했다. 후에 그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도서관에서 특별히 대출을 허가했다"고 회고했다.

라이 교수의 <중국불성론>은 당시 중국의 불교학계로서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나아가 영국 옥스퍼드 인명록에까지 등재될 정도로 일약 세계적인 학자로서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

뿐만 아니라 그의 연구업적을 통해 중국의 현대불교학 연구가 활성화되는 단초가 됐다.

라이용하이 교수의 학풍은 이른바 유(儒)·불(佛)·도(道) 삼가의 상호관계 속에서 중국불교의 전개는 논한다는 데 있다. 그는 "중국불교의 전개는 바로 중국철학의 전개와 나누어질 수 없고, 서로 병행 관계를 이루며 진행된다"고 말한다.

라이 교수는 "상당한 기간 동안 중국철학사 연구에 종사한 학자들은 불교를 이해할 수 없었다면 중국철학에 대하여 깊이 연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중국불교를 연구하려는 사람이 만약 중국

1980년대 개혁개방 연구 1세대

불교 중국 토착화 등 고민·연구

'중국불성론' 통해 해명 시도

중국 전통 현대적 해석에 관심

고대철학, 특히 유·도 양가의 철학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가 알고 있는 중국불교도 한 부분일 뿐이다. 중국불교학 연구도 똑같이 깊이 들어가기가 매우 어려운 것은 물론이다."

라이 교수는 중화문화연구원장을 역임하며 중국전통문화와 불교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진행했다. 연구에서는 인간불교에 관한 연구 등이 진행됐다.

라이용하이 교수는 불교가 중국전통문화에 미친 영향과 근대에 진행된 태허(太虛) 법사의 '인간불교(人間佛敎, '생활인의 불교')' 전통의 현대적 재해석 등에 관해 연구하기도 했다.

라이 교수의 저서로는 <중국불성론> <중국불교문화론> <종교학개론> <불도시선(佛道詩禪)> <불교와 유학> <담연(湛然)> <불전집요(佛典輯要)> <고승전서역(高僧傳譯)> <중국불교략사> 등이 있다. 국내 연구에는 동국대 불교학술원 김진우 교수 등이 있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부처님 정골사리 홍콩 전시

4월 25~30일, 제3회 세계불교포럼 기간 중

중국 보은사(Bao'en Temple)에 소장된 석가모니 두개골 사리가 4월 홍콩에서 전시된다.

중국일보(chinadaily.com.cn)는 "부처님 두개골 사리가 제3회 세계불교포럼 개최에 맞춰 4월 25~30일 홍콩에서 전시된다"고 3월 12일 보도했다.

두개골 사리의 이운을 책임질 추예 쉹(Xue Cheng · 중국불교연합 부대표) 스님은 "이번 전시회는 석가모니의 두개골 사리의 첫 해외전시이다. 중국과 홍콩 불교계의 노력이 이변과 같은 신기원을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추예 쉹 스님은 "서방에서는 중국의 경제발전만을 눈여겨 있어서 안타까웠다. 이번 전시회와 포럼을 통해 서방에서 중국의 유구한 문화도 함께 주목해주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문헌에 '불정진골(佛頂眞骨)'로 표현된 석가모니 두개골 사리(중국 보은사 소장)는 2008년 중국 난징 금릉대보은사 터 지하공전에서 발굴돼, 현존하는 유일한 두개골 사리로 평가받고 있다.

홍콩에서는 지금까지 석가모니 치아사리만이 1999년과 2004년 두차례 전시됐다. 2010년 홍콩 인구통계에 따르면 총인구 10%에 달하는 70만여 불자들이 있고, 사찰은 600개로 추산된다.

오종욱 편집위원



석가모니 진신 두개골 사리가 담겨 있는 금도금보탑(중국 보은사 소장)

日 오가츄 불교계, 핵 참사 1주년 추모공연

최근 수산물 가공공장 설립 도와

미야기현 오가츄(Ogatsu) 불교계가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원전 사고 일주년인 3월 11일 지역여성 불자로 구성된 불교합창단 추모공연 무대를 마련해 지역 주민을 위로했다.

온라인 매체 에프티(www.ft.com)에 따르면 "대지진과 쓰나미 그리고 핵 참사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오가츄에서 불교계는 지금까지 주민들을 북돋으며 재건의 길을 모색해 왔다"고 보도했다. 이토(itto) 수산물가공공장 대표는 "오가츄 어린이들은 쓰



나미로 양식·가공시설 뿐만 아니라 집도 잃어버렸다. 불교계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결코 오늘에 이르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베트남, 쿠안 암 축제 개최

9~11일...트럼소그 린포체 범문

베트남의 대표적인 불교축제인 쿠안 암 축제(Quan The Am Festival)가 개최됐다. 온라인 매체 베트남넷(english.vietnamnet.vn)은 "3월 9일부터 11일까지 다 낭(Da Nang) 시에서 수천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쿠안 암 축제가 개최됐다"고 12일 보도했다.

쿠안 암 축제는 1960년 어부들의 안전과 번영을 관세음보살에게 기원하기 위해 처음 열린 이후, 매년 개최되어오다가 2000년 국가 공인 축제로 지정되면서 관광객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한편 이번 축제에는 인도 다람살라에 소재한 트럼소그(Tramthog) 린포체(남갈 사원 주지)의 범문이 마련돼 축제의 의미를 더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日江스님께서 정리하신 상용의식

책을 내면서...

지금까지 갖가지 의식에 대한 절차나 예법을 기록한 책이 많이 나와 있으나 초심자가 이용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었다. 이번에 소개하는 각종의식 집은 조예가 없는 사람이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의식진행 순서대로 작성하였다. 아무쪼록 본 의범이 법요의식을 진정한 염불로 바르게 행하고자 하는 불자들에게 많이 활용되어 중생계에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줄 것을 기대한다.

편집인 日江 합장

사용하기가 간편하여 스님들에게 최고 인기 판매 중!

예경·권공의식집

예불에서부터 불공에 이르기까지 목탁, 요령, 합장표시와 자세한 설명, 그리고 의식 순서대로 되어 있어 초보자도 쉽고 자신있게 의식을 집행할 수 있다.

46배판 | 118쪽 | 값 15,000원

불상 점안 의식집

부처님을 모신 후 불상점안 의식은 이 책 한권으로 해결할 수 있다.

46배판 | 59쪽 | 값 9,000원

천도(49)재 의식집

천도재, 구병시식, 지장불공, 관음시식 등 재 의식을 초보자도 쉽고 자신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순서별로 되어 있다.

46배판 | 123쪽 | 값 12,000원

고사의식집

가택 평안을 위하여 사용되는 고사의식집이 알기 쉽게 편집되었다.

46배판 | 130쪽 | 값 13,000원

다비의식 집 (2010신간)

누구나 간결히 기다리면 의식집, 송가다비편과 재가다비편이 임직 후 처음으로 시신을 대하는 순서부터 화장, 매장 등 의식절차가 순서대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정확하고 세밀한 설명으로 누구나 당황하지 않고 자신있게 의식을 집행할 수 있다.

46배판 | 158쪽 | 값 15,000원

행복한 운명을 만드는 비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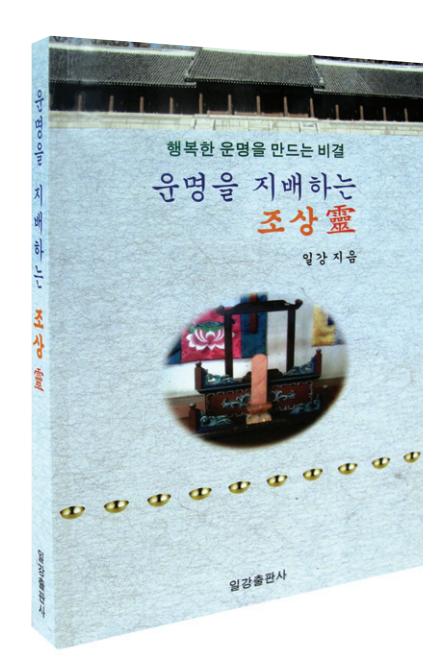
신간 **운명을 지배하는 조상靈**

- 구입문의 : 일강출판사 02)2237-8543
- 4권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입니다.
- 입금계좌 : 기업은행 267-017536-04-024 / 사단법인 천우중

행복한 운명을 만드는 비결

신간 **운명을 지배하는 조상靈**

행복한 삶의 길을 터주는 보물열쇠!
바로 이 책 한권으로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



- 모두가 염원하던 책! 드디어 완성 출간!
- 엄청난 영향과 운명의 비밀이 담겨있는 책!
- 실제 있었던 체험담이 이 책 속에 들어있다.
- 이 책을 읽고 실천에 옮기면 즉시 소원성취 할 수 있다.
- 바로 조상靈을 만나보고 불가사의한 일을 체험해 보십시오!
- 누구나 한번 읽고 소장해야 할 화제의 필독서!
- 영계(靈界)의 실상을 파헤치고 소원성취의 길로 인도하는 최고의 걸작!
- 종교지도자들이 이 책을 읽고 신도들에게 권해주면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책값 : 12,000원 | 사찰 다량주문 환영

구입문의 : 일강출판사 02)2233-5286, 2237-8543 / 입금계좌 : 기업은행 267-017536-04-024 사단법인 천우중